

濟州流配歌辭에 나타난 生活相

梁 淳 瑛

I

조선시대의 문학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농후하게 지니고 있다. 사대부는 벼슬을 해서 정권에 참여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서 모두 정치인이었다. 벼슬을 해서 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제한되어 있어서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진출을 할 수 없어서 산림으로 물러나가거나 시정에서 살아가는 사대부라 해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다.

재야 사람의 상소문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가지고 정권 담당자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선비라면 누구나 예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그런데 사대부는 모두 정치인이면서 또 문인이었다. 정권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아야만 했고, 사대부로서 행세하기 위해서는 시문을 지어서 문집을 남겨야만 했다. 정치적인 능력은 문학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정치에의 야욕은 붕당을 만들고 자기가 소속한 당은 대인이요, 다른 당은 소인이라 단정하여 당쟁이 치열해졌다. 여기서 승리한 자는 집권하여 정치의 꿈을 펴서 사대부로서 행세하게 되고, 패배한 자는 여지없이 낙향하거나 유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죄인은 원악 지이거나 벽지, 외딴 섬으로 유배되어진다.

이리하여 온갖 어렵고 고생스러운 유배생활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유배된 자신의 소중한 창조적 공간으로, 그리고 창작적 계기로 삼아 자신의 불운을 달래고, 유배지에서 겪은 바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을 문학화하는 것이다.

1) 趙東一 『古典小說과 政治』, (『文學과 政治』 民音社 . 1980. p.117)

제주섬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절해고도이므로 지난 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최고형을 받은 유형수들이 유배 온 최악의 유배지로서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지역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정치와 학문, 그리고 문인을 겸비했던 유배 자들에 의해 창작되어진 제주섬을 배경으로 한 유배문학은 그 질량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학이란 생활의 반영이며, 그 생활의 농도에 따라 문학의 농도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곧 유배문학에서는 다른 문학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인간의 진실성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본연구는 제주유배문학 가운데 추자섬을 배경으로²⁾ 하여 창작된 가사인 영조 때 李眞儒의 『續思美人曲』과 정조 때 安肇煥(?)의 『萬言詞』·『萬言詞答』 등을 중심으로 여기에 나타난 생활상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제주섬을 배경으로 창작되어진 유배가사는 4편이다. 여기서 유배가사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流配地와 作家·作品

順行 區分	年 代	作 家	流配地	作 品	事 件	色目, 派	出 典
1	燕山君	曹 偉	順 川	萬 憤 歌	戊午士禍	士林派	雜同散異
2	中 宗	李 緒	潭 陽	樂 志 歌	謀叛한다는 誣告	未 詳	夢溪零稿
3	宣 祖	鄭 徹	昌 平	思美人曲	兩司의 論斥	西 人	松江歌辭
4	"	"	"	續美人曲	"	"	"
5	肅 宗	金春澤	濟州島	別思美人曲	世子の 謀害嫌疑	老 論	筆寫本
6	"	宋疇錫	德 源	北 關 曲	服制論是非	"	恩譜輯略
7	英 祖	李眞儒	楸子島	續思美人曲	辛丑疏聯名の 禍	少 論	李匡師所藏歌辭
8	"	李匡明	甲 山	北 竄 歌	李眞儒의 逆律緣座	"	贈參議公謫所詩歌
9	正 祖	安肇煥	楸子島	萬 言 詞	破廉恥罪·會計失手	未 詳	筆寫本
10	"	"	"	萬言詞答	"	"	"
11	"	李基慶	慶 源	尋 眞 曲	天主教彈壓의 微溫	南 人	"
12	"	"	"	浪 遊 詞	의 態度論斥	"	"
13	哲 宗	金鎮衡	明 川	北 遷 歌	背公黨利論斥의 禍	"	晴篔遺稿

2) 추자섬은 고려 元宗 12년(1271) 이전까지 候風島라 불리면서 정치력이 좀처럼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한 때는 전라남도 영암군에 예속됨으로써 楸子島라 불리게 되었다. 1884년에 와서는 濟州牧에 이속되었다. 그러므로 제주목에 이속되기 전의 작품이었다고 해도 제주섬 중심의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가운데 ⑤.⑦.⑨.⑩ 등 4편이 제주섬과 그 도서지역에 유배당하여 창작된 유배가사이다.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배자가 경기도와 충청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이 유배지로 유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배문학의 작품 창작지로는 북쪽의 극변과 남쪽의 절해고도인 제주섬과 추자섬으로, 생활조건이 지극히 나쁘고 불리한 곳에서 창작되었다는 점에 특기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극악한 유배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불운하고 답답한 심정을 글로써 나타내지 않고서는 자기가 처한 유배지에서의 무서운 외로움, 온갖 어려운 고생과 쓰라림, 자신의 억울함을 애소. 자탄하는 감정 등을 달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글은 승화의³⁾ 탈출구, 곧 욕구충족인 것이니, 실로 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절대적인 절규에서 써지는 것이다.

당쟁의 계보로 보면 유배 작가 10명 가운데 서인계열 5명, 남인계열 2명, 계열미상 2명, 사림파 1명으로 나타나 서인들의 당쟁 관여가 한층 더 높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를 보면, 선조 이후가 13편의 작품 가운데 11 편이어서 유배가사가 바로 선조 때부터 시작한 당쟁과 정치에 관여한 자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유배를 당하여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가운데 제주섬과 추자섬에서 창작된 숙종 때 金春澤의 『別思美人曲』과 영조 때 李眞儒의 『續思美人曲』, 그리고 정조 때 安肇煥의 『萬言詞』·『萬言詞答』 등은 유배문학의 특성을 여실히 잘 보여 주는 것으로 국문학사상의 그 의의가 높다고 본다.

유배가사의 제목이 미인으로 상징되고 왕·주군·님을 상사와 연모⁴⁾의 공통적 대상이 되었다면 연산군 때 曹偉의 『萬憤歌』를 비롯해서 선조 때 鄭澈의 『思美人曲』·『續美人曲』 등을 지나 숙종 때 金春澤의 『別思美人曲』과 영조 때 李眞儒의 『續思美人曲』에 와서 이른바 美人系 流配歌辭가 그 계보와 함께 그 완성을 보았다는 점과 유배지 제주섬과 그 도서 지역이 그 미인계 유배가사의 창작의 전제로서 그 배경이 되어 있다는 데 그 의의가 높을 것이 사야할 것이다.

동일 환경의 생활에서도 생활 체험의 결정은 개인의 정신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마련인 것이다. 이것은 곧 작가에게 있어서 문학적 창작의 역량이라 하겠다.

李眞儒의 『續思美人曲』과 安肇煥의 『萬言詞』·『萬言詞答』은 실제로 동일한 환경인 절해고도인 추자섬에서 유배생활을 통해 창작되어진 유배가사로 양극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유배생활에 직면한 작가가 유배지의 환경과 접촉할 때, 결코 그 환경과 전체에 반응하지 않는

3) 尹弘老 『韓國文學의 解釋學的 研究』(一志社, 1976) pp.13 ~ 14 “승화(카타르시스)란 어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詩學』에 사용한 그리스어어인데 문학의 기능과 관련지어 보면 정서의 압박에서 해방되는 일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4) 丁益燮 『美人歌辭攷』(全南大 『湖南文化研究』1집, 1963, p.61)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研究』(靈雪出版社, 1974) p.17

李家源 『大學漢文新選』(民衆書館, 1962)p.221 『思美人』참조

다. 다만 그 가운데 선택된 일부에 반응하여 그 선택에 작가의 관심(흥미)의 조직화에 따라 결정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유배가사의 양극⁶⁾의 배경이 바로 제주섬과 그 도서 지역이 되었다는데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유배가사인 영조 때 李眞儒의 『續思美人曲』과 정조 때 安籟煥의 『萬言詞』・『萬言詞答』 등을 중심으로 여기에 나타난 생활상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III

제주섬과 그 도서 지역은 지리적으로 절해의 고도이다. 섬은 멀리 대해 가운데 있으며, 그 파도는 다른 바다 가운데도 몹시 사납고 거칠다. 척박한 섬의 땅과 모진 바람, 비가 많은 기후와 바다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제주섬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지척도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지난 날 중앙 관리들의 착취와 왜구들의 침탈, 안과 밖에서 당해야만 했던 뼈저린 수난은 극심한 것이었다. 그리고 제주섬과 그 도서 지역이 그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환해성과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격절성과 섬의 토지가 협소하다는 협소성 등의 도서적 특성을 가진 지역인 것이다.⁷⁾ 그러므로 본토와 두절되고 고립되어진 격절성 때문에 자급 자족하는 생활이 강제되어 섬의 사회는 정체하고 전통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는 후진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제주섬의 지각은 주로 화산회토로 농토가 매우 척박하였다. 지력이 나빠서 농사를 지어도 그 소출이 극도로 적어 섬사람들은 대대로 영세성에 허덕일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태풍의 통로인 “風多”로 말미암아 재해가 잇달고 흉작을 면치 못하였기 때문에 섬사람들의 식생활은 한 마디로 가난의 연속이었다. 배불리 먹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시피 했다. “밭 한 판을 보태느니 보다 식구 한 사람 더는 것이 낫다.”는 제주의 속담은 바로 이러한 가난을 입증하는 것⁸⁾이라 하겠다.

세종 10년(1482) 조정에서 제주섬의 토지 세율을 조정하게 되었을 때, 본도의 세 가지 재해가 논의되고 본도에 대해서는 면세할 것을 여러 대신들이 상주한 바가 있었다.

이 세 가지 재해란 “風多災”・“水風災”・“旱多災”⁹⁾를 뜻하였다. 이것은 나쁜 뜻에서의 “濟州三多”라 하겠으나 이는 제주섬 사람들이 오랜 옛적부터 기후의 악조건과 끊임없이 싸워 왔다는 산 증거가 된다.

5) 崔載瑞 『文學原論』(春潮社, 1962) pp.182 ~ 183 참조

6) 尹貴燮 『流配歌辭의 兩極』(同德女大 『同大論業』 제 2 집, 1971. pp.47-64)

7) 姜景禧 『古典的 島嶼性에 대한 考察』(濟州大學 『논문집』 13 집, 1981 p.203)

8) 『濟州道誌(上)』(濟州道, 1982) p.232

9) 金錫翼 『耽羅紀年』 卷之 2 世宗 10 年條 “時朝議 定本島稅總大臣筵奏曰 此島地勢 山高多風 谷深瀑多水災 土薄多旱災 三災並侵 年必多歎 苦責納稅 民無以生 王從之遂寢”

제주섬의 도서 가운데 가장 큰 섬인 추자섬은 바로 이러한 지리적 상황을 상징한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것이다. 제주섬은 광해군 때부터 1910년까지 흉년의 횡수는 근 70 여회나 있었다. 광해군 2년(1610)엔 큰 풍수해로 많은 사람이 굶주렸고,¹⁰⁾ 숙종 37년(1711)엔 큰 풍수해로 신촌리의 가옥이 온통 불에 잠기는 일이 있었다!¹¹⁾

동왕 41년(1715)까지 연달아 강풍 및 가뭄, 호우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어 백곡이 절종되어 농민의 생활은 가난에 찌들렸다. 영조 40년(1764)과 이듬 해에 큰 흉작이 일어나 섬 사람 가운데 만여명이나 굶주려 죽는 자가 속출하여 그 비참이 극에 달했다.

이 가운데도 정조 18년 甲寅(1794)년 흉년은 이른바 “甲寅年 흉년”이라 하여 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흉년하면 반드시 입에 오르내리는 민담이 있을 정도이다.

고종 4년(1867)부터 1906년까지 흉년이 연속되었고, 특히 동왕 23년(1886)엔 6월에 전염병으로 수만명의 죽은 이가 생겼고, 7월에 큰 풍수해로 불에 떠내린 가옥이 많았고 남수구가 홍문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으며,¹²⁾ 동왕 31년(1894)에 큰 가뭄에 재해가 극심하여 섬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주섬의 지세가 나빠 농사는 흉작이 잦았으므로 세종 17년(1435) 경작지가 1만결 미만인데도 인구는 6만여명이나 넘어 기근 현상이 생겨, 無田業良人과 私賤의 출륙이 허용되고 있었다.¹³⁾

그러나 성종 1년(1470)부터 인조 20년(1642)까지 약 150년간 제주섬의 굶주린 자 가운데 본토 각지에 옮겨 갔기 때문에 제주섬 세고을의 인구가 격감하자 조정에서는 이런 사태를 중시하여 난민들의 섬 밖 출륙과 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경책을 수립 실시하였으나 굶주린 섬 사람들의 출륙의 수요는 더 늘어 가기만 했다. 성종 때 泗川에 제주섬 사람들이 200여명이나 옮겨 살아서 조정에서 논의된 일은 바로 그 한 예가 된다.

이렇게 본토 각지로 이주·도망하는 자가 계속 나타나자 도내에서 왜구에 대한 방위와 공불 헌납 등을 감당할 길이 힘들게 되어서 조정에선 드디어 광해군 12년(1620)에서 현종 2년(1836)에 이르는 무려 200여년간 출륙금지령으로 섬사람들의 발을 묶어 놓기까지 했다. 그 출륙 원인 가운데 첫째, 원인이 바로 식량난이었다!¹⁴⁾

10) 『上揭書』卷之2 光海君 2年條 “大風水年荒人多飢”

11) 『上揭書』卷之3 肅宗 34年 秋 8月條 “大風雨平地成川 新村里 人家七八區漂沒”

12) 『上揭書』卷之3 高宗 23年 夏 6月 秋 7月條 “夏六月癘疫大熾 死者數萬人 秋七月大雨平地成川 漂流人家及塚 南水口虹門自毀”

13) 『世宗實錄』卷 70 17年 乙卯 12月己酉條 “濟州人多地窄民 聊生往哉恤俾安基業……戶 九千九百三十五 人口六萬三千九十三 田則九千百十三結四千八卜 地利有限 食之者衆 救荒之弊 無歲無之 無田業良人 各從自願 從居陸地 私賤亦從 本主自願出陸”

14) 金宗業 『歷史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耽羅精神 探究세미나』 濟州大學耽羅問題研究所 1979.p.14)

추자섬은 제주섬의 도서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섬이다. 제주섬과 목포 사이의 군도로서 목포에서 약 60리, 제주에서 약 30리의 해협에 위치하고 있는 절해고도로 上楸子島·下楸子島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이 섬 주위에는 靑島·水德島·外蘆島·華島·海岩嶼 등 대소 28개 섬이 모여 추자섬을 이루고 있다. 이 섬은 둘레가 30리나 된다. 『萬言詞』의 작자의 지적대로 하늘이 만든 지옥 “天作地獄”으로 이름 그대로 죽음의 땅이다.

무릇 제주섬에 가는 자가 羅州를 떠나면 務安·大嶺浦·靈岩·火無只瓦島·海南·於蘭梁을 거쳐 이 추자섬에 이르고, 海南에서 떠나면 三千浦로 쫓아 巨要梁·三內島를 거치고, 康津에서 떠나면 軍營浦로 쫓아 高子黃伊露瑟島, 三內島를 거치는데 모두 3주를 걸러 이 추자섬에 이른다.

여기를 경유하여 斜鼠島·大火脫島·小火脫島를 지나 朝天館에 이르거나¹⁵⁾ 제주 禾北嶼 포구에 이른다. 이 海路는 제주섬에 유배된 인사들이 입도하는 해로이기도 한 것이다.¹⁶⁾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주섬과 그 도서 지역은 절해고도이므로 조선조 때 대표적인 유배지에서 여기에 유배당한 사람들은 예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정치적으로 유배를 당한다는 이유가 아니면 환해고도인 제주섬과 추자섬에까지 와서 일상적인 생활 경험이 아닌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거나 異香이 짙은 풍물과 三神山의 하나인 한라 영봉 등 유배지의 자연을 가까이 접하고, 그 자연에 젖어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유배인들이 불운을 겪지 않고, 화려한 정계에서 일신상의 영달만을 누렸더라면 심산유곡의 자연의 아름다움은 맛볼 수 없었고, 竹杖芒鞋로 穿陟하며 輕舟短棹로 강호에 나아가 왕래 遊賞하며 실제로 친하지 않았다면 자연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¹⁷⁾

제주섬과 추자섬에의 유배가 비록 대지팡이와 짚신으로 천척하며 輕舟短棹로 강호에 나아가 왕래 유상하며 자연을 벗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도 제주섬과 추자섬이 유배인들에 의해서 문학적 소재가 되어졌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

문학은 생활을 반영한다. 문학이 생활의 표현이라고 하면 국문학 소재 전체가 생활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 제주섬과 추자섬이 유배인에 의해 문학적 소재가 되고, 거기에 어떻게 생활을 반영했는가 살펴 볼 필요를 느낀다. 과연 유배가사에는 어떻게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는가 『癡思美人曲』과 『萬言詞』·『萬言詞答』을 통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15) 李荇 등 『新增東國輿地勝覽』(民族文化推進會, 1971) 『世界大百科事典』卷5 (學園社, 1965) p 900. 추자도는 북제주군의 제주 해협에 있는 군도로 면적 7.56㎢ 대소 30개의 도서와 암초로 되어 있다. 1㎢ 이상의 것은 하추자도(4.7㎢)와 상추자도(1.8㎢)의 두 섬 뿐이며 기타 1㎢ 이하는 靑島·水德島·外蘆島·華島·海岩嶼·牛島·蟾島·廉島·禮島·水嶺島·樂生伊島·秋浦島·梧桐島·羅劍島·望島·厚島·床島·穴島·甌島·加仁嶼·納德島·空嶼·直龜島·橫干島·蘆嶼·門嶼·鹿嶼 등임

16) 1840년 9월 秋史 金正喜가 제주에 유배된 경로도 바로 이 禾北嶼포구로 입도하였다.

17) 趙成桓 『國文學과 講所關係』(郡山教大 『論文集』 7집, 1974, p.133)

『續思美人曲』의 작가 李眞儒가 景宗 때 辛壬土禍¹⁸⁾ 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당쟁의 피해자로서 조선조 가사 작가군의 정통 유형에 속한다면, 『萬言詞』·『萬言詞答』의 작가 安篋煥은 파염치범으로 본인의 과오로 저질러진 범죄 사실이 있다.¹⁹⁾ 똑 같은 유배가사이면서도 이 두 작품은 작자 신분에 있어서나 유배된 죄명에 있어서나 모두 대조적이다. 다만 공통성이 있다면 유배지가 절해고도인 추자섬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萬言詞』는 보기 드문 비참한 유배생활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 이 방면의 자료로는 대단히 희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일 환경의 유배생활에서도 생활 체험의 결정은 개인의 정신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마련인데,²⁰⁾ 그것은 작가의 관조에 따라서 다른다 하겠다. 가령 폐쇄적인 자연인가 개방적인 자연인가의 태도도 그런 예이다.

조선조의 유형집행의 방법을 육지에 유배하는 것과 외딴 섬에 유배하는 것이 있다. 그 가운데 섬에도 落島·孤島·絕島·無人島 등의 구별이 있었다. 그리고 유배지에 와서도 적소에 배치된 유형수에게는 죄상의 가볍고 무거움 여하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리 결정되었다.

그 방법에 安置·園籬安置·絕島安置·充軍 등이 있다. 혼한 방법은 적소에 보내면 그냥 그곳에 방치해 두고, 따로 일정한 장소에 구속하는 것 같은 일이 없으나, 안치되었을 경우 적소에 따로 장소를 지정하여 유폐시키는데 이른바 폐문인 것이다.

이와 같은 안치에 해당하는 자는 대개가 왕족이거나 고위현관에 한한 것으로, 이 안치에도 형이 무거운 자는 절도안치에 처하고, 형이 가벼운 자는 분향안치에 처하는 것이니, 정치적 유배자는 위리안치에다 절도안치를 겸한 절도 위리안치이었다.

18) 安鍾和 『國朝人物志』(Ⅲ) p. 231 “辛丑疏頭 金一鏡 李眞儒 朴明誼……世稱疏下六賊 李眞儒字士珍完山人…肅宗己卯進士 丁亥文科 選入史局 歷史曹參議大司成 辛丑與一鏡 上疏言 代理之不可語極 慘官至副提學庚戌拿鞠拷死 乙亥追施逆律” 『英祖實錄』卷3 元年乙巳正月 辛丑條 “李眞儒…削奪官職門外黜送”

19) 『萬言詞』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정리해 보면 張德順 『國文學通論』 p.374. 尹貴燮 『前掲書』 p.47. 丁益燮 『前掲書』 pp.531~555. 朴景義 『國文學背景研究』 p.58. 李相寶 『前掲書』 p.77. 文璨植 『流配歌辭의 內容의 考察』 p.461. 金亨奎 『國文學概論』 一成堂, 1956) p.179. 李相寶 共編 『歌辭文學全集』(精研社, 1961) p.391. 文元閣 『韓國文學大事典』(文元閣, 1973) p.830. 鄭寅承·梁柱東 등 6人 『韓國語大辭典』(玄文社, 1976) p. 536. 李崇寧外 7人 『國語國文學事典』(新丘文化社, 1973) p.212. 許維 등 2人 『國語國文學事典』(一志社, 1973) p.86. 崔常壽 『國文學辭典』(東星社, 1953) p.93. 金一根 『안도은가』(서울: 관훈동 고서점에서 발굴된 자료, 1980) 『順興安氏族譜』 『正祖實錄』 등 17개의 자료의 통해 봤으나 아직도 年代·作家도 확실히 考證되지 못하였음. 작품 속에 표출된 작자를 보면 瀕死狀態로 태어나 一週日만에 생기를 얻었고, 11세에 모친상을 당하여 10년간 外家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무렵 계모를 맞이함에 東史古文·四書·三經·唐音長篇·宋明史를 숙독한 才童으로 지적받았다. 20세에 結婚하여 淸歌妙舞로 연일 방탕하고 御樂院의 호사한 생활을 지내다가 私利行脚으로 7일 감옥살이 중 聖恩을 입어 복직되나 富貴功名을 탐하다가 25斤의 칼을 쓰고 34세에 楸子島에 유배된다.

20) 尹貴燮 『前掲書』 p.47.

추자섬에 유배된 자는 어김없이 이 설도 위리안치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추자섬에 유배된 경우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파염치법으로 유배된 『萬言詞』의 작가 安肇煥은 추자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가 25근(약 15kg)의 큰 칼²¹⁾을 목에 쓰고 손엔 수쇄²²⁾ 발에는 족쇄²³⁾를 각각 차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배와 같은 중형으로 취급되어졌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추자섬에의 유배는 절도안치와 같이 문자 그대로 절해고도에 유배되는 것으로서 기후가 사납고 맹수·독사·독충이 우글거리며, 식량을 비롯한 먹을 것들이 부족하여 생활은 가난에 찌들려 여유가 전혀 없으니 섬의 인심이랑 풍속은 거친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환경의 반영이 바로 추자섬 유배의 생활상이었다.

(1) 食糧難

보이나니 바다히요 들리나니 물소리라
碧梅桑田 갈린後에 모래모여 섬이되니
楸子섬 생길제는 天作地獄이로다.

〈『萬言詞』 제5단〉

추자섬은 기후, 풍토를 비롯한 제반조건이 나빠 농사도 잘 아니되는 모래 섬이다. 바닷물로 성을 쌓고 구름과 산으로 불을 지어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지옥. 이른바 하늘이 창조한 지옥으로 여길 만큼 궁핍한 곳이다.

히도도 하고한대 원악디를 골라내여
빅년 형극을 추즈도의 처음여니

〈『續思美人曲』 제5단〉

추자섬이 원악지요, 절해고도로 百年荆棘의 유배지로서는 대표적이 곳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유배당한 사람은 무인도에 유배당한 것처럼 어려운 유배생활을 겪게 되는 것이다. 추자섬의 생업은 주로 어업이고 보니 식량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닌 상설다.

앞뒤에 田畝이 없고 물속으로 生涯하여

- 21) 徐查教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研究』(서울: 韓國法令編纂會, 1968) p.160, “枷의 定 規定은 長5尺5寸, 頭圍 1尺5寸이다. 死刑囚는 25斤, 徒·流刑囚는 20斤, 杖罪人은 15斤, 正祖 2년(1778)에 死刑囚는 22斤, 徒·流刑囚는 18斤, 杖罪人은 14斤으로 개정, 여자 사형수는 枷를 쓰지 못하게 함”(『大典條例』卷之9, 刑典 刑曹 刑具條)
- 22) 『上揭書』p.161. “梃는 流刑以上の 죄를 지은 남자에게 채우는 수감”(『大典條例』卷之9, 刑具條)
- 23) 『上揭書』p.162. “鐵索은 長1丈의 쇠줄을 만들어 죄수에게 足鎖로 施用”(『大明律直解』 獄具之圖)

앞언덕 고기뉘아 옷녀에 장사가니
 상망언어 보리섬이 믿을것이 아니로세
 身兼妻子 세식구의 糊口하기 어렵거든
 糧食없는 나그네는 무엇먹고 살려는고.

〈『萬言詞』 제4단〉

추자섬은 전답이 없고 주된 생업이 어업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 가운데 보리는 고기뉘아 장사하여 구하는 형편인 것이다. 그것도 호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여기에 유배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굶주리기가 일수여서 생계를 헤아리기 지극히 어려운 처지이다. 비참할이만큼 가난한 정경을 엿볼 수 있다.

일힘이 기갈흔들 무어스로 구플손고
 힘탁을 썰어내니 수두미 썬이로다.
 빅죽을 뿌어내여 둘러안자 뇨기 하고.

〈『續思美人曲』 제6단〉

식량문제는 北谷의 경우 여행 주머니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쌀이라도 있어 죽을 쑤어 입에 풀칠할 수 있었으나 安審煥의 경우 섬사람들도 호구하기 어려운 식량난의 환경인데도 동냥 행각에 나섰다. 손가락질 당하며 〈귀향다리〉·〈구름다리〉·〈징검다리〉·〈열두다리〉·〈웃다리〉·〈아래다리〉·〈석은다리〉·〈헛다리〉·〈板子다리〉·〈慶通다리〉·〈水標다리〉·〈孝徑다리〉·〈馬다리〉·〈젓다리〉·〈中學다리〉·〈향다리〉·〈찢다리〉·〈학다리〉·〈수각다리〉·등등으로 회화화하면서 마지막에 〈귀향다리〉는 〈病身다리〉로 뉘두리로처럼 궁상을 떨고 있다. 겨울이 되면 내륙과의 교통 두절로 식량난은 더욱 가증하게 마련이었다.

염동이 깃혀지고 뉴디는 못통흔니
 낭식도 뽕결거든 반찬이야 의논하며
 염장을 못먹거든 어육이야 브랄소나

〈『續思美人曲』 제6단〉

식량난은 전답이 없고 생활기반을 물에 의지하는 그것도 보잘 것 없는 고기뉘기가 생업이었기 때문이다.

석기의 빅돌치고 도통의 드러가니
 촌낙이 쇼쇼하야 수십호 어가로다

〈『續思美人曲』 제6단〉

쏟솔하게 수 10호의 어촌 집이 있는 촌락은 추자섬의 생활을 상징하고 있다. 결국

눈물로 밤을새와 아침에 조반드니

덜쓰린 보리밥에 무자명이 한종이라
한술을 떠서보고 큰덩이 내어놓고
그도저도 아조업서 굴물적이 간간이라
여름날 긴긴날에 배고파 어려워라

<『萬言詞』 제4단>

‘덜 쓰린 보리밥’과 ‘무자명이 한 종자’도 없이 긴긴 여름날 허기차서 괴롭고 고된 생활이 말이 아닌 것이다. 나쁜 환경 속에 굶주림과 싸우는 생활은 추자도 유배생활의 전부라 할 것이다. 바로 유배자로 하여금 식량난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했다. 식량난으로 유배자에게 온갖 雜役을 다 시켜 하루도 공밥 먹이는 일이 없을 정도다. 우리 속담에 ‘주인의 보탬 나그네 없다.’는 말과 ‘광에서 인심의 난다.’는 말이 있듯이 주인이나 손님의 사이에 어느 쪽이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그만큼 인정도 순후해지게 마련인 것이다. 추자섬의 식량난은 주인이나 손님이 다 너무도 가난하기에 고생은 어쩔 수 없을 뿐 아니라 서로의 인정조차 메마르지 않을 수 없다.

(2) 住居難

추자섬은 식량난에 이어 거주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이집가서 依持하자 家難하다 핑계하고
적집에가 主人하자 緣故있다 칭탈하네
이집저집 아모멘들 謫客主人 뉘종달고.

<『萬言詞』 제4단>

유배자에게 적소를 쉽사리 제공해 줄 만한 섬사람들의 인심은 없다. 그만큼 섬사람들의 주거 생활이 극심하게 빈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풍우를 무릅쓰고 와실을 촛조드니
모조는 다 날리고 독창의 무지훈대
상상 옥누는 모른대 전혀업다
말만 흔 좁은방의 조슬도 만홀시고
팔척 당신이 구버들고 구버나며
다리불 서려누워 긴밤을 새와나니
쥬등의 적신의 복 어너불의 물너오며.

<『續思美人曲』 제6단>

적소라고 찾아든 곳은 마치 달팽이 껍질 같은 좁은 住居處다. 茅茨는 다 날리고 종이도 아니
- 바른 竹窓에 지붕은 비가 새고 벼룩과 이가 많은 곳이다.

집이라고 서볼손가 기어들며 기어나며
 房간간에 主人들고 나그네는 잘데업네

<『萬言詞』 제4단>

그것도 땀 한칸인데 주인이 들어 있으니, 적객이 잘 수도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 이런 나쁜 환경도 혹한이 되어 방 한칸을 의지하게 되나 그것은 발이 방이지 방이 아니다.

主人의 筋力받아 房半間 依持하니
 흄바람 발랐은들 조희맛 아올손가

 대를얻어 門을하고 현자리로 가리오니
 적은바람 가리오들 큰바람 어찌하리

<『萬言詞』 제7단>

그 방은 큰 바람도 막을 수 없는 짐승의 소굴이다. 그만큼 추자섬은 극심하였다.

용술간옥을 초창함을 경영홀시
 도동의 모든 빙성 단심하여 완역하니
 번드운와하던 창화현 풍속일다.
 제도는 추억하나 거처는 소쇄하다.

<『續思美人曲』 제6단>

住居難은 결국은 유배자의 경우 스스로 은거처를 만들어 나가는 수도 있다. 이른바 위리안치 된 가시울타리 안에 수 칸집을 지어 그런대로 습하긴 하지만 깨끗한 거처를 만든다. 섬사람들의 盡心完役하고 番土運瓦하는 생활태도를 볼 수 있다. 유배지의 현지 주민들은 정치적 유배자에게는 비교적 호의적이었다. 반면에 安肇煥의 경우 비정치적 부정으로 유배였다는 점에서 유배지 주민들의 냉대는 더욱 심했던 것으로 매우 대조적이다.

(3) 講所의 環境

추자섬은 절해고도요, 무인도에 가깝게 취급되어져 와서 절도안치·위리안치·중형자의 유배지이다. 그러나 일정한 적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安肇煥의 경우를 보면

이집에가 依持하자 家難하다 핑계하고
 저집에가 主人하자 緣故있다 칭탈하네
 이집저집 아모덴들 講客主人 뉘종달고
 官力으로 遷迫하고 勢不得已 말았으니

<『萬言詞』 제4단>

그 때 그 때 형편대로 관의 힘에 의 사세부득이 적소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것도 어느 집 가

난한 집의 처마 밑이 적소로 정해진다.

뛰자리 한잎주어 簷下에 居處하니
冷地에 漏瀾하고 증생도 하도할샤
발남은 구렁배암 뺨남은 청진의라
左右를 돌렸으니 무섭고도 승그럽다.

<『萬言詞』 제4단>

그것도 냉하고 습기찬 땅이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환경이다.

主人의 筋力빌어 房半間 依持하니
흙바람 발랐은들 조희맛 아을손가
壁마다 틈이빌어 틈마다 버레로다
구렁지네 섞여있어 若干버레 저허하라
굶은버레 주어내고 작은버레 던져주네
대를엮어 門을하고 현자리로 가리오니
적은바람 가리온들 큰바람 어찌하리

<『萬言詞』 제7단>

혹한이 되어 적소로 방 한칸 중 반을 쓰게 되었으나 그 적소의 방은 큰 바람을 막을 수 없는 “구렁지네”. “작은 벌레”의 소굴이다. 이와는 달리 北谷의 경우를 보면

심장형니니톨 스면의 들너치고
북편의 궁글두어 물길홀 겨유내니
구만리 당텐을 덩등에 보라보듯
듀야의 들너느니 히도와 림풍이오
도모의 섯두느니 다무와 만우로다.

<『萬思美人曲』 제6단>

이른바 北谷은 절도 위리안치로 추자섬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황냉한 적소의 환경이 잘 나타나 있다. 가시 울타리를 사방에 둘러치고 유배생활을 한다는 것은 살아서 다시는 王寵을 회복하거나 귀향하기가 힘든다는 것을 상징한다. 밤낮으로 들려오는 파도소리, 사나운 바람,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는 독한 안개, 거치른 빗날씨 등은 絶世隔離로 죽음의 비참한 유배 환경인 것이다.

승예문땡은 빅가지로 썩지지고
샤갈오공은 스벽의 종횡하니
훈일도 흥황업고 빅악만 구비하다.
상인 히물홀것 세상의 하도할샤

<『續思美人曲』 제6단>

이와 같이 적소의 환경은 나쁘다. 그 주변은 한 가지도 이로움이 없고 백가지 악만 갖추어 사람에게 해를 주는 파리, 모기, 등애, 뱀, 전갈, 지네 등이 들끓는 나쁜 환경이다.

(4) 日常生活

衣服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난다.
南方炎天 찻는 날에 빠지못한 누비바지
땀이뻘고 때가올라 굴뚝막은 덕석인가
덥고 검기 다버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萬言詞』 제4단>

유배생활은 생활 중에 독특한 생활이다. 일상적인 생활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유배자들은 이러한 특수한 경험을 일상화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땀이 배고, 때가 올라 냄새 나는 그리고 빨지도 못한 낡은 누비바지를 몹시 무더운 혹서에 입고 다니는 걸인같은 비참한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어 갖은 욕설과 냉대를 받아가며,

고기냥기 하자하니 물허리를 어찌하고
나무베기 하자하니 힘모자라 어찌하며
자리치기 신삼기는 모른거든 어찌하리

<『萬言詞』 제5단>

고기냥기 . 나무베기 . 자리치기 . 신삼기 등을 하려 궁리 끝에 “어와 할일 업다 동냥이나 하여보자”고 결심하여 구차한 걸인행각에 나서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의 하나하나가 다 불편하다.

무삼일을 하잔말고 신삼기나 하자하고
깊한단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보니
조회노도 모르거니 샷기꼬기 어이알리

<『萬言詞』 제6단>

갖은 욕설을 들으며 동냥하던 일을 다시는 않겠다고 “신삼기”를 결심하나 그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가

게울리 일어앉아 굵은다리 퍼올적에
삭다리를 조기는듯 더디마디 소리난다.
들담뱃대 앞난초를 쇠뚝불에 부쳐들고
躑地를 따라앉아 옷에 이 주어낼제

<『萬言詞』 제7단>

‘쇠똥불’이 유일한 불씨인데, 담배를 쇠똥불에 부쳐들고 양지 바른 곳에서 이를 잡는 궁상
맞은 생활을 일상적으로 하게 되었으나

아침이면 마당쓸기 저녁이면 불매히기
별이나면 쇠똥치기 비가오면 도랑치기
들어가면 집지키기 보리명석 새날리기

〈『萬言詞』 제8단〉

‘마당쓸기’, ‘불매주기’, ‘쇠똥치기’, ‘집지키기’, ‘새날리기’ 등 온갖 잡역을 일상적 경험이 없
어 힘든데도 그 어려운 생활을 하여 가며

내生涯 내벌어서 菑且를 免차하니
처음에 못하던일 나중은 다배혼다
자리치기 먼저하자 틀을쫓아 내려놓고
바늘대를 뽑내면서 바다를 드놓을제
두어깨 무어지고 팔과목이 부러진다.
멍석한잎 겨러내니 보리닷말 手工이오
도래방석 틀었으니 돈五分이 값이로다.
編한 筋力 強作하여 부지런을 내자하니
손뿌리에 피가나서 조희골모 얼리르다.
이렇고도 사자하니 사자하는 내그르다
실같은 이殘命을 淸음죽도 하다마는
아마도 모진목숨 내목숨 뿐이로다.
人生이 至重함을 이제와 알리로다.

〈『萬言詞』〉

‘자리치기’, ‘멍석절기’, ‘도래방석만들기’ 등의 온갖 잡역을 치루면서 실오라기같은 잔명을
끊으려고 생각하나 인생이 귀중함과 살아서 가족 상봉하고자 하는 歸巢意識과 恩赦妄想에 젖어
형극의 어려운 유배생활을 일상화 하면서 초극하게 되는 것이다.

Ⅳ

이상 제주유배가사에 나타난 생활상을 식량난, 주거난, 어려운 적소의 환경, 어려운 일상생활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 추자섬은 절해고도로 유배지의 대표적 지역으로 유형수 가운데 중형인 자가 유배되던 지역이다.

둘째, 추자섬은 환해고도이므로 자급자족할 식량이 부족하여 섬사람의 생활은 가난하였으며, 주거가 어려운 생활환경이어서 유배자의 유배생활은 극도로 비참하였다.

셋째, 주거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적소의 환경은 “땀” · “전갈” · “지네” · “파리” · “등애” 등 독충, 독사가 징그럽게 들끓는 최악이 조건이어서 유배생활을 일상화하기엔 온갖 잡역을 치루어 살아가야만 하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하였다.

넷째, 섬인 경우에 환해성 · 격절성 · 협소성 등으로 제주섬을 비롯해 추자섬이나 흑산섬 같은 데는 원채 빈한한 섬이 되어 생활의 처참은 극에 달하였다.²⁴⁾

다섯째, 제주섬과 그 도서 지역인 추자섬의 유배생활은 三旬九食의 굶주림과 싸우는 처참한 생활이었다. 달리 『北遷歌』에서 나타난 金纘衡처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기생까지 희롱하고 호사했던 유배생활이란 상상도 못하는 간난신고의 생활 그것이었다.²⁵⁾ 이는 그만큼 절도유배가 이른바 천작지옥이요, 형극의 비참한 생활임을 단적으로 예증해 준다 하겠다.

여섯째, 李眞儒의 경우 정치적 유배로 말미암아 추자섬에 절도위리안치를 당한 것이나 安肇煥이 파염치범임에도 정치범과 같은 절도안치를 당한 것은 당시 사회가 공인들의 부정을 엄히 벌한 일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24) 張德順 『前掲書』 p.368 “江華나 濟州 같은 비교적 부유한 곳은 그렇지 않아도 楸子島나 黑山島 같은 데는 원채 貧寒한 섬이 되어 生活의 처참은 극에 달하였던 것이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濟州島의 自然的·歷史的 環境』을 고찰하고, 金榮敦 교수의 제주도 민요 노동요의 제재 분석에 따르면(『제주도 민요연구』p.125) 1,142 편(100%)의 민요 중 244 편(21.4%)이 생활고를 노래하였고, 240 편(21.0%)이 노동생활을 노래하였다는 실증은 바로 제주섬 사람들이 그만큼 쪼든 생활고였고 그렇게 제주섬이 부유한 곳이 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5) 張德順 『韓國文學史』(同和文化社, 1977) pp.278 ~ 279 參照
尹孤山이 慶源에 流配되었을 때에는 洪獻妓 趙娘이 하루 저녁에 세 차례씩 내방하여 위로하였고, 또 孤山이 74세 때 三水에 유배 되었을 때에는 洪獻 趙妓의 두 딸 禮順과 勝禮의 섬의를 받았고, 光海君 때 北青에 유배된 李恒福도 이 洪獻 趙妓의 후대를 받았던 것이다.

— Summary —

The Way of Life in the Exile Literature of Jeju-Island

Soon-pil Yang

In the previous chapters we've studied the way of life underlying the exile literature of Jeju-Do with special emphasis upon food problems, dwelling problems, adverse circumstances of exilian places and the difficult daily lives of the island. Thus we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Chuja-Do, an isolated island, was the representative one of the exilian places where the criminals with a heavy penalty were sent into exile.

Second, as Chuja-Do was a lonely island in the far-off sea, it was short of food to support itself. Its islanders were very poor and their dwellings were also bad, and so exiles' life was the bitterest one.

Third, the dwellings of the island were very foul. There were full of many creepy and poisonous animals such as serpent, scorpion, centipede, fly, gadfly in the exilian place. So the islanders suffered from fatigue duties during the exilian life under the bad circumstances.

Fourthly, some islands, Chuja and Heuksan including Jeju were very destitute. And, the people of the islands lived also a miserable life to the uttermost.

Fifthly, the exilian life in Jeju-Do and Chuja-Do was the painfulest one; the straggle against starvation. There could be found unimaginable hardships of life unlike that of Mr. Kim Jin-Hyung, who had on nice clothing and good food, sporting with a Kisaeng (a dancing or singing girl) in 'Bookchungga'. It may be said that the exilian life contains much wretchedness of life.

Sixthly, the fact that Mr. Lee Jin-You was sent into exile to Chuja-Don as one of political exiles and that Mr. Ahn Pil-Hwan was considered to be a political offender, though Mr. Ahn was a really shameless offender, suggests that the society should have a severe punishment system at that time.